

탐 불이산우법회 **방**

“30년 불심 매주 山법회”

갈 때마다 새로운 야외법당, 갈 때마다 즐거운 열린법회. 매주 이른바 ‘열린법회’를 통해 산에서 배우는 청정심으로 국토청정을 실현하고 있는 불이산우법회(회장 조인행·66)는 1년이라는 짧은 연륜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신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저마다 깊은 불심을 자랑하는 독특한 모임이다.

일단백의 신심을 지닌 회원들은 평균 30여년 이상의 수행경력을 지닌 중년층이 대부분이라 드러나는 신형보다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산행을 통해 자연과 한마음이 되는 청정법회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생활과 수행을 겸하며 동행정진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최고 연장자인 정명만(76)은 별명이 수보리 장로다. 새벽 3시만 일어나 예불과 참선을 거르지 않는 신실함으로 회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또 권성준(67) 부부는 인천 용화사에서 100일간 동·하산거를 치루는 괴력을 보이는 회원 저마다

창립된지 1년... 열기는 30년 오물줍기등 환경실천 필수

치열한 정진을 하고 있다.

“생사와 일반, 자연과 우리, 너와 나 등등 세간의 차별적인 모든 형상이 참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둘이 아니다.”는 〈유미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에서 모임을 이룸을 정한 것도 이 법회의 성격을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3월 3일 관악산 연주암 아래 양지바른 산도토리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이 모임은 지난 달 2일 보현봉 일산사 아래에서 시산제를 겸한 창립 2주년법회를 가졌다. 1년전의 다짐처럼 산행과 수행을 조화롭게 절충하면서 내실있는 법회를 꾸려왔다는 자책감도 내려졌다.

그동안 법회장소는 서울 근교의 명산에서 좋은 장소를 골라 정했다. 30여명의 정회원과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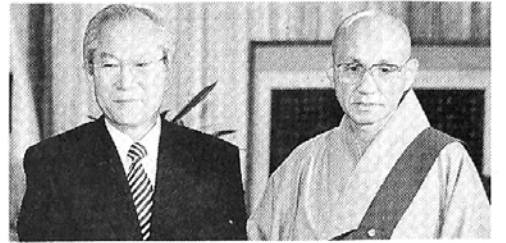
불이산우법회는 매주 일요일 서울 근교의 명산에서 열린법회를 갖는다. 지난 3월2일 창립2주년 법회 장면.

주마다 새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연결과 산행경험을 가능케 적당한 산세와 위치를 정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회를 거르는 일도 없으며 같은 장소를 여러번 가는 경우도 없다. 산을 오르고 내릴 때는 오물을 줍기 위해 항상 비닐 봉투와 집게를 휴대한다. 산상법회에서는 체재의 상암법사(불이정진법원장)의 설법과 교리공부가 이어진다. 지나가는 등산객도 발걸음을 멈춘다. 불

자들은 함께 법회에 동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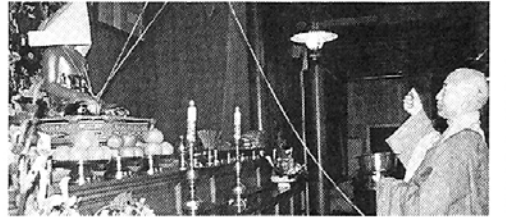
조인행회장은 “1년동안 내실있는 수행을 쌓아 온 만큼 올해부터는 불우이웃 돕기 등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 근교의 버려진 불교유물과 폐사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월주스님-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환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환담했다. 월주스님은 “조화와 화합으로 큰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불교는 국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보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현시국을 타개하는데 불교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해창(총무부장), 성광(기획실장), 원우스님(재무부장)을 비롯 함중환, 하순봉, 김중욱위원 등이 배석했다.



조계종 불교회관 불상 점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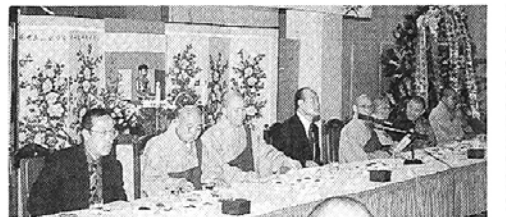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는 지난 3월 24일 총무원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점안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설정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뜻을 모아 봉안하게 됐다”며 “불교회관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근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중앙총회부의장 법흥, 총무부장 해창, 문화부장 성관, 재무부장 원우스님등을 비롯 자성, 원명, 지홍, 정병 등 종회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



목정배교수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

목정배 교수 화갑기념논총 봉정식이 지난 3월 24일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송석구 동국대총장, 이재창 금강불교대학장, 김경배 고려대학교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논총봉정식에 이어 동국국악관악단의 연주와 김덕수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다.



서울경승단 ‘나라위한...’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단(대표 무공)은 지난 3월 27일 구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및 청정취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단총재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인국, 서울지방경찰청 대표 무공·경승실장 동광, 북부경찰서 경승 동훈, 노원경찰서 경승 혜자스님, 이필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도선사합창단, 불자직인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주사 생태기행 “풀 한포기도 우리에게 생명교훈”

‘맑고 향기...’ 주최, 본사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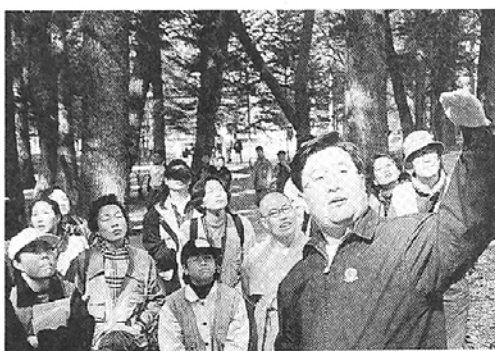
“엄마! 저 나무에는 왜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병이들어 아픈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란다.”

사람주변의 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참가한 장복순씨가 딸 초록(9세)양과 정이풍을 보고 주고받은 대화이다.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2회 법주사주변 ‘사찰환경 생태기행’에는 50여명이 참가했다. 간간이 눈발이 날린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가족동반 참가자가 많았다. 지난 3월23일 오전 11시경 속리산 기슭 법주사에 도착한 생태기행팀은 먼저 부처님께 참배했다. 그리고, 정승스님(법주사 포교국장)으로부터 신라 진흥왕13년 창건한 법주사 역사를 들었다.

이어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과)의 법주사주위 사찰환경 및 자연환경실태에 관한 강연은 근처의 식물원들을 교재로 본



법주사 주변에서 열린 맑고향기롭게모임의 제2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의 강의 장면.

격적으로 진행됐다. 해맑은 웃음속에 실시된 속리산 현장체험에서는 해발 약 600m를 경계로 윗쪽에 분포해있는 서어나무, 신갈나무, 풀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림과 아래쪽 능선부의 건조지에 분포해 있는 소나무의 생태를 조사했다.

특히 소나무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자연림보다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식재림이 많아 잘 정돈돼 있었다. 문교수는 “법주사 주변의 자연보존은 타사찰에 비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최근 관광객의 증가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아직 이른 봄이라 동물 및 조류의 생태기행은 후일을 기약했지만 식물생태 조사만으로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눈빛이 역력했다. 어머니와 함께한 박성원군(대치중 1년)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자연에 나와 직접 관찰하며 설명을 들으니 재미있다”며 즐거워 했다.

속리산 법주사=김주일 기자

사법연수원 28기 드라마법우회

사법연수원 제28기 드라마법우회(회장 황석광) 창립법회가 지난 3월21일 조계사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지도법사 법륜스님(정도법당), 김희옥(지도교수)·박충우 사법연수원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예비법조인들의 모임인 드라마법우회는 지난해 4월 사법연수원 제27기생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신형단체. 이번에 창립된 제28기 드라마법우회는 현재 사



“마음공부로 법 짓대 정립해요”

초동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자 5백여명중 8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만든 두번째 법우회다. 매년마다 연수생이 새로 배출되다 보니 기수별로 새로운 임원진과 회원이 구성되어 매년마다 창립법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초대회장 이승형씨에 이어 제2대 회장이 된 황석광씨는 이날 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10여년전에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불교모임을 지난해 공식화하고 법회의 내실을 다진 만큼 올해부터는 경건 공부를 심화하고 수행

과 봉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법문에서 “법조인도 사회환원에 책임이 있다”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心淨國土)는(화엄경) 구절을 인용, 예비법조인들에게 마음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우회원들은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매주 화요일에 경전공부를 가지면서 부처님의 법과 법학상의 법을 조화시키는 공부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선정문화로 민족통일의식 고양”

3회 하나로포럼 지상중계

“귀순불자에 관심을”

“선정문화의 지혜와 지비의 힘을 모아 민족통일을 이룩하자.”

하나로포럼선정문화(상임공동대표 고준환)와 평불협(회장 법타)은 공동으로 지난 3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선정(禪定)문화와 민족통일’을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가졌다.

민족통일을 위한 선정문화의 역사적 사상적 실천방안을 모색한 이번 포럼은 ‘민족통일성 회복’을 화두로 장원대 최용기교수(사회과학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관·학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기교수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의식에 바탕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족통일의식은 외래문화의 추종이 아닌 한민족의 문화인 선정문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교수

최교수는 또 “통일을 대비한 정치·경제의 안정과 환경보존, 민족문화의 발달을 위해 구체적인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선정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박순우 남순지장회 총무는 “불교를 전통문화로 인식하며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던 북한 귀순자들이 대부분 남한에서 기독교로 전향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 통일이후의 북한포교를 대비해서라도 귀순불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김학준 인천대 총장, 김석우 통일원 차관, 정천구 영산국제산업대 총장, 연기영 동국대 교수, 박순우씨 등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급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사)

- 후면: 석가세존일대기(광상도)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490,000원

◆부도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사·화)

- 후면: 반야심경(주사 영인본)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480,000원

◆석가 세존 일대기(광상성도)

- 후면: 금강경(고급공단 금사·화)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390,000원

8 폭 병풍

◆천불 금강경

- 경리규격: 505×255×8(%)
- 재질: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 ※경관테두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 봉축특가: ₩480,000원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 金銅般若心經

- 규격: 268×209(%)
- 재질: 순진주/순금세공
- 특가: ₩60,000원

◆금강호신불시계

- 금강호신불시계특정
- IPG순금도금
- 고급금강병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자조각
- 특가(남·여각): ₩60,000원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mm)

- 특가 ₩120,000

◆단풍꽃(코끼리 만경보함) 1차 3차 390mm

- 특가 ₩330,000

기획제작전문봉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 (02) 732-6095~6